

‘지지율 정체’ 이재명, 외교·안보 ‘우클릭’ 으로 돌파 시도

중도 확장...한미동맹 최우선
‘국익 중심 우선’ 기조 전면에
남북 정상회담 빼고 상황 관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외교·안보 분야에서 중도 확장 기조를 유지하며 정체된 지지율 회복에 나섰다.

이 후보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외교·안보 정책에서 “미래를 여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며 “이재명의 실용 외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다”고 밝혔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당선 시 민생경제 회복을 국정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고 밝힌 데 이어 외교·안보 정책 역시 국익과 실용 외교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후보는 보수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 편향’ 등의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한미 동맹을 외교 핵심으로 삼겠다는 점을 못 박았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와도 차별화에 나섰다.

한미일 협력을 견고히 하는 동시에 중요 무역 상대국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러시아와 전쟁을 벌인 우크라이나 재건에 기여하면 서도 한러 관계 역시 개선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일 협력에 편중된 가치 외교가 사실상 주변 열강과의 관계 전반을 악화했다고 보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4강과의 외교를 정상으로 복원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이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인 위성락 의원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 관계뿐만 아니라 한러 관계도 수교 이래 최저점”이라며 “한미동맹, 한일 협력, 한미일 안보 협력을 기본으로 중·러와의 관계도 적절히 관리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일 관계를 놓고도 위 의원은 “과거사나 영토 문제는 원칙 있게 대응하되 나머지 협력 사항은 전향적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또 “경제·통상과 안보 이슈의 연계도 우리 앞의 과제”라며 “경제 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주요국과 연대·협력을 강화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모든 에너지를 경제와 민생 회복에 뒤야 한다”고 했는데, 외교·안보 영역에서도 경제 회복을 중요한 정책 가치로 삼은 모습이다.

정책 발표문에서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의 파트너뿐만 아니라 조선, 방산, 첨단산업 등 협력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 후보는 남북 관계와 관련해선 “긴장 완화와 비핵 평화로 공존하는 한반도를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9·19 군사합의가 윤석열 정부에서 파기돼 다시금 긴장도가 높아진 만큼 우선은 이를 완화하는 게 급선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가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 채널 복원을 추진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성사된 남북 정상회담이 공약에서 빠진 점이 눈에 띈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취임 1년 내 회담 성사’를 공약한 바 있다.

이 후보 역시 정책발표문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 일었던 ‘퍼주기’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김현수 기자



21대 대선 선상투표

26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관위에 마련된 선상투표 상황실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실드팩스로 선상투표를 접수하고 있다. 이날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가 시작됐다. 한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원양어선 등 배 454척에 승선한 유권자 3,051명이 투표 대상이다.

연합뉴스

사전투표 임박...원내 4당, 전남서 표밭같이 총력전

민주·국힘·민노·개혁신당
거리유세·전통시장 등 공략

제21대 대선 사전투표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26일 원내 4당이 전남지역 표밭같이 총력을 기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권교체를 위해 투표율 86%, 득표율 90% 이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광주 84.8%, 전남 86.1%의 득표율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비해 득표율이 10%p 안팎 낮았고 최종 0.7%p 차이로 고배를 마신 점에 주목, 집토끼인 호남 지지 기반 다지기에 심혈을 기울였다.

지지선언도 잇따라 이날 하루에만 전남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 전남 사회복지 20개 직능단체장과 회원, 전남 장애인복

지시설협회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장인 3선 신정훈 의원은 전남 방방곡곡 현장 경청과 지원 유세에 돌입, 이날부터 전남 전역을 돌며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등 집중 지원유세에 나섰다. 지역화폐 사용 챌린지, 전화하세 캠페인도 벌인다.

신 본부장은 “내란을 종식시키고 무너진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절체절명의 기회”라며 “전남에서부터 민주주의 회복의 불씨를 다시 지피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표심잡기에 여념이 없다.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광주 5개 자치구 릴레이 유세를 마친 뒤 곧바로 전남으로 넘어와 담양·장성·영광·영암 등지를 차레로 돌며 거리유세를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김문수 후보는 호남의 사위로 좋은 사위 한 명이 열 자식 안 부럽다”며 “친정 방문 예정인 김 후보 부인 설난영 여사를 고향

분들이 따뜻하게 맞아 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전남선거대책위원회는 “사전투표 전 골든크로스 실현이 필요하다”며 지난 주말 여수·목포를 잇따라 방문, 이들 연속 대규모 집중 유세를 진행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백지화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전남 국립 의과대학 신설, 노동·녹색 중심 산업 대전환, 이민사회기분법 제정,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화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표심을 파고들었다. 전통시장, 출·퇴근길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권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비랑 끝 위기에 놓인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대전환 등을 기원하며 여수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개혁신당도 도내 주요 교통요충지와 유동인구 밀집지역에서 출·퇴근길 피켓 선전전 등을 펼치며 40대 이공계 출신 이준석 후보에 대한 아낌없는 지지를 호소했다.

정근산 기자

민주 “명분없는 단일화 꿈수...외면받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대선 막판 변수로 부각된 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과 관련해 “명분 없는 야합”이라며 견제를 이어갔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저들이 보수통합을 얘기할 때, 우리는 국민대통합을 이야기합니다”며 “명분 없는 단일화 꿈수는 어떤 내용도 비전도 있을 수 없기에, 스스로 무너지고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고 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김여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은 물론 이준석 후보도 단일화 하려는 동기가 99%인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이준석 후보 지지층 가운데 일정 부분은 제3의 길, 새로운 보수의 길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만약 단일화 야합이 이뤄지면 그런 부분이 빠지면서 1 더하기 1은 결코 2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현수 기자

더불어
민주당

내란세력에게
다시 나라를 맡기시겠습니까?
사전투표로 내란을 종식시켜주십시오

내란세력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국민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사전투표로 대한국민의 내란종식 의지를 반드시 보여주십시오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경제를 되살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세계주도의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의지와 희망을 사전투표로 보여주십시오

5월 29일(목), 30일(금)은 사전투표일입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별도의 신고없이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약속하는 광주·전남

미래 산업의 심장, 신성장의 동력 광주·전남
광주·전남을 시와 미래 모빌리티,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1 이재명

지금은

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광고주명:더불어민주당)